

<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, 은행권 간담회 >

모두 말씀

2019. 7. 17.(수)

은행연합회 중회의실

금융위원회 위원장

최 종 구

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□ 여러분 반갑습니다.
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.

□ 그 동안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.

○ 최근, 동산금융의 성과가 서서히 가시화 되고 있다는
기쁜 소식도 들려옵니다.

○ 오늘 이 자리는
우리 동산금융이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는
지혜를 모아보자는 마음에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바쁘신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,
김태영 은행연합회장님과
은행장님들께
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○ 또, 이 자리에는 법무부의 이용구 법무실장님과
신용정보원의 신현준 원장님,
금융감독원의 권인원 부원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.

○ 모두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
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.
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.

< ❶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경과 >

□ 지난해 5월말,
정부는 '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'을 마련하였습니다.

- 그동안 부동산 담보와 공적보증에 의존하는
은행의 보수적인 기업대출 관행이
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.
- 이로 인해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거나
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창업·중소기업에게는
은행의 문턱이 높았습니다.
- 만약, 600조원 규모의 우리 중소기업 동산자산이
새로운 담보로서 활용될 수 있다면
우리 창업·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
크게 나아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였고,
그러한 기대 속에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

□ ‘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’ 속에 담긴
세부 과제들이 차근차근 현장에 도입되고 있습니다.

- 법원의 담보등기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개편^①하였고,
은행권의 대출 가이드라인도 과감히 혁신^②하는 한편,
정책금융을 통한 지원도 확대^③해 나가고 있습니다.

※ ① 제3자 등기부열람 허용, 보관장소 변경시 변경등기 허용 등
 ② 업종제한(제조업), 담보물제한(무동력기계, 원재료), 대출상품
 제한(동산전용 대출상품), 담보인정비율 제한(40%) 폐지
 ③ 산은 동산담보 특별온렌딩 한도 상향(연 1,000억원 → 2,000억원)
 신보 동산담보 특례보증 공급 확대(5년간 5,000억원 → 1조원)

- 그 동안 미비하였던 ‘평가-관리-회수’ 인프라도
단계적으로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.

- 먼저, 평가면에서 동산감정평가 오픈풀(Open Pool)을 마련하여
감정평가를 내실화하고 정보유용성을 높였으며(평가),

-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,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,
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
은행권 공동의 여신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(관리).
- 보다 원활한 회수를 위해
민간시장에서 매각을 쉽게 할 수 있도록
기계 이력관리시스템*(기계거래소),
동산 매각포털**(캠코) 등도 차질 없이 도입하였습니다(회수).

* 동산의 성능·고장이력·노후화 정도·과거 회전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

** 여러 시장에 산재된 동산매각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집중·제공

< ② 동산금융 활성화 성과 >

☐ 정부와 민간의 노력에 힘입어

동산금융자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

- 지난 1년간('18.7월~'19.6월) 신규공급액이 5,951억원으로
예년 대비 약 7.8배가 증가하였고,
- 6월말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6,613억원으로
전년 같은 시기('18.6월) 대비 3.2배가 늘어났습니다.
- 지식재산권 담보대출(잔액 4,044억원)까지 감안할 경우
전체 동산담보대출 규모는 1조원을 뛰어넘는(잔액 1.07조원)
성과를 거두었으며,
- 최근에는 지식재산권 금융분야에서
민간시장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
반가운 소식도 들립니다.

※ 시중은행 IP담보대출 잔액 : ('19.4월 이전) 13.8억원 → ('19.6월) 793.2억원
시중은행 IP담보대출 시장점유율 : ('19.4월 이전) 0.4% → ('19.6월) 19.6%

□ 질적 측면에서의 혁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.

- 동산의 담보능력과 은행의 적극적 여신정책으로
우리 중소기업들은 동산금융을 통해 최대 3.5%p 수준의
금리인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.
- 또한, 은행의 담보인정비율 자율화(종전 40%로 획일화)로
기업의 여신한도가
최대 1.5배 확대되었습니다.
- 은행 여신관리 시스템도 바뀌고 있습니다.
사물인터넷을 통한 동산담보 사후관리 시스템을 통해
은행의 여신관리 부담과 비용도 경감되고 있습니다.

< ③ 은행권의 중소기업 우수지원 사례 >

- 동산금융이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
금리·한도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었지만,
 -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
다양한 우수 지원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
- 동산금융은 “기술력을 담보화”하자는
금융권의 숙원 과제를 실현시켜주고 있습니다.
 - 사실 기술력은 법적 재산권이 아니므로
담보로서 인정받기 어려우나,
기술력이 체화된 기업의 설비는
담보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- “항공기용 발전기 기술”이 체화된 기계를 담보로
운전자금을 지원한 A은행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.

※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부문에서 국내유일의 기술을 보유한 ○○업체의
기술력을 높게 평가(기술평가등급 T3)하여 항공발전기 제조기술이 체화된
기계설비를 담보로 운전자금을 지원

- 또한, 동산담보는 신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기업의
1금융권 이용을 가능케 해주었습니다.

- B은행은 2금융권 리스자금을 이용하던 기업에게
기기를 담보로 구매자금을 지원함으로써
금융비용절감 및 신용도 상승에 도움을 주었고,

※ 제2금융권의 리스자금을 이용중이던 ○○업체에게 기기담보로 구매자금
지원 → 동 기업은 이자비용을 절감(7%→3%)하고 신용등급도 상승이 기대

- C은행은 국내 3대 기계판매기업과 제휴를 맺어
그간 관행적으로 2금융권 리스자금을 이용하던
기계 구매업체들의 1금융권 이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.

※ 기계판매기업들과 제휴를 통해 기계구매기업이 구매자금이 부족한
경우, 기업은행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마케팅 수행

- 나아가, 동산금융은 자동차 부품업체와 같이
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산업, 기업에 대한
신용위축의 위험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.

- 자동차부품업체의 기계(너클프레스)를 담보로
적극적 여신을 지원한 D은행과,

- 원청업체의 신용공여 축소*로 어려움을 겪던
다수(8개)의 납품업체에 대해 매출채권을 담보로
운전자금을 지원한 E은행도 있습니다.

* 원청업체의 여신한도 억제정책으로 하청업체에 대한 한도 축소

□ 담보자산의 다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.

- F은행은 시중은행 중 최초로
IP금융전용상품을 신설하고
다양한 특허권을 담보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
- E은행은 18만개의 장난감(재고)을 집합담보로 취득하여
장난감 제조에 필요한 운영자금을,
A은행은 가축(한우)을 담보로
송아지 및 사료매입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.

< ④ 향후 활성화 계획 >

- 동산금융의 물꼬가 트인 만큼
탄탄한 성장궤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
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.
- 8월 중에 동산채권담보법 정부입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.
 - 자세한 내용은 오늘 법무부에서 발표해 주실테지만
법무부에서는 여러 은행들에서 제기한 건의사항을
대부분 수용했습니다.
 - 무엇보다도 ‘일괄담보제’라는 것은
그 동안 우리법에는 없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
별도로 연구반을 구성하면서까지
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.
 - 법무부의 노력에 특별히 감사를 드리며,
아무쪼록 국회 법안 심사가 원활히 마무리되어
빠른 시일내에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
새로운 동산담보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.

- 하반기에는 신용정보원과 함께
동산금융정보시스템(MoFIS*)을 구축하겠습니다.

* MoFIS : Movables Finance Information System

-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,
동산담보 전 주기(평가-대출-관리-매각)에 걸친 정보를
체계적으로 집중·분석·가공하여 제공함으로써,
은행의 여신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.
- 현재 시범서비스를 통해(6월말~)
시스템 안정화 작업 등을 거치고 있는 중이며,
8월에는 동산금융정보시스템이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.

- 내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
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.

- 회수지원기구는 은행의 동산담보대출 부실시
일정한 가격조건하에 담보물이나,
부실채권을 매입함으로써
은행권의 동산담보확대에 따른 부담을
크게 줄여 줄 것입니다.

< ⑥ 당부말씀 >

-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!

- 지난해 5월 동산금융 정책을 발표하면서
여러분들에게 설명 드린바와 같이
한국최초의 은행 대출은
대한제국 시절, 한성은행의 “당나귀 담보 대출*”입니다.

* 1897년, 서울에서 물건을 들여 대구에서 판매를 하던 대구상인이 당나귀를
담보로 물건을 살 때 필요한 구매자금을 대출(출처 : 신한금융박물관)

- 당시는 은행이 문을 연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,
개척자 정신이 충만하던 시대였을 거라 생각합니다.
- 은행은 상인에게 없는
부동산이나 귀중품을 요구하지 않고
상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
당나귀를 발견하고 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.
- 우리 창업기업과 혁신기업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.
설비나 재고, 특허권과 매출채권 등이 그것입니다.
- 금융이 이러한 동산의 가치를 먼저 발견하고
대출의 소재로 삼아 적극적으로 자금을 융통한다면
“은행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고
우리에게 있는 것은 봐주지 않는다*.”라는
기업인들의 호소에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* '19.3.21일, 대통령 주재 『혁신금융 비전선포식』 당시 기업인의 발언

□ 일각에서는 동산의 담보로서 내재적 한계를 지적하고,
또 다른 곳에서는 동산담보의 규모가 작음을 지적합니다.

- 안된다고 생각하면 수 많은 이유를 찾아낼 수 있고,
어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.
- 하지만 될 수 있다는 한 가지 이유는,
우리 기업이 600조원의 동산자산을 가지고 있고,
우리 금융이 생산적 분야를 개척하려는
의지와 역량이 있다는 믿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

□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
아직 동산금융의 비중은 크지 않고,
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기 위해서
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- 부디 개척자의 정신으로
우리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
혁신적 금융의 확산을 위해 힘써주십시오.
- 미국의 사례*에서 보듯,
시장이 확대되고 유관 서비스업이 활발히 출현한다면
우리나라도 부동산 못지 않게 동산이 널리 쓰이는
선진적 기업금융 환경이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.

* 미국은 자산담보대출(ABL ; Asset Based Lending)이 활성화되어 있으며
동산담보가 부동산담보보다 비중이 높음('03년, 동산 63% vs 부동산 37%)

* 미국 ABL제도 활성화 배경에는 은행의 평가(동산전문감정평가 등), 관리
(현장조사(field examiner) 대행서비스 등), 회수(담보처분(liquidator) 대행서
비스 등)를 도와주는 외부 유관 서비스업의 활성화가 뒷받침하고 있음

□ 감사합니다.